

오클랜드 성 김대건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KOREAN CATHOLIC CHURCH
6226 CAMDEN ST. OAKLAND, CA 94605 WEB WWW.OAKCC.ORG

주임신부 Fr. Dominic Kim 김도미니코(광근) (510) 562-3843 사무실 (510) 553-9434 Fax (510) 639-4842
 사목회장 Lay council chair 게토마스(성일) (510) 589-3311 standrewoak@gmail.com
 thmschae@yahoo.com 대건외관 (510) 562-8107

미사	주일 미사	오전 8:00 오전 11:00 영어미사 12시 30분	성사	고백 성사	미사 30분전	예비자 교리	주일 오전 9:30(106회의실) 목요일 저녁미사 후(대건회관)
	평일 미사	수,금,토 오전7:30 화,목 오후7:30		유아 세례	2주일 전 신청		
신심	성 시간	매월 첫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지속적인 성체조배	병자 성사 봉 성체	2주일 전 신청	통신교리 - 전화문의	
	성령 기도회	매주 토요일 미사 후 (대건회관)		혼배 성사	3개월 전 신청		
	향심 기도회	매주 목요일 오후 8시(107회의실)		매월 첫 금 9 PM ~ 토 7 AM			
	하느님의 뜻영성	매주 목요일 오후 8시(103회의실)					
	주일 학교	매주일 오전 11:00-12:15	한국학교	토요일 오전 9:40-12:40			

받아 먹어라.

이것이 너희들을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여라.



[제 1독서] 창세 14, 18-20

[화답송] 시편 110(109), 1,2,3,4(㉔ 4ㄴㄷ)

◎ 멜키체덱과 같이 너는 영원한 사제로다.

- 주님께서 내 주께 이르셨나이다. “내가 너의 원수들을 너의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
- 주님이 당신 권능의 왕홀을 시온에서 뿜치시리이다. “너의 원수들을 다스려라.” ◎
- 네 권능의 날에 주권이 나와 함께하리라. 거룩한 빛, 새벽 품에서 나는 너를 낳았노라. ◎
- 주님은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않으시리이다. “멜키체덱과 같이 너는 영원한 사제로다.” ◎

[제 2독서] 1코린 11,23-26

[복음 환호송] 요한 6,51 참조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

[복음] 루카 9, 11ㄴ-17

성가	8시 미사	입당 162	봉헌 -	성체 168	파견 199
	11시 미사	입당 200	봉헌 211 217	성체 163 164	파견 202

주일 전례 봉사

구분	그리스도의 성체성혈대축일(6월 2일)		연중 제10주일(6월 9일)		연중 제11주일(6월 16일)	
	8시	교중미사	8시	교중미사	8시	교중미사
미사해설	이바오로(명국)	조레지나(선덕)	김안토니오(휘)	허세실리아(홍숙)	정스텔라(애리)	황테레사(혜정)
제 1 독서	김안토니오(휘)	최다니엘(대연)	김안드레아(찬곤)	허라우렌시오(순구)	최본도(환준)	구미카엘(창희)
제 2 독서	김안젤라(영선)	서테레사(춘애)	김글라라(순희)	허파비올라(옥진)	임루카(승원)	김테레사(승희)

보편지향기도

오늘의 강론

나눔의 신비

녹음이 짙어져 가는 계절, 6월의 첫 주일인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과 피를 저희에게 양식으로 내어주신 성체성사의 의미를 되새기고 우리도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랑과 나눔의 성체성사의 삶을 살아갈 것을 굳게 결심하는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 미사를 봉헌합니다. 특히 우리는 오늘 야외미사를 봉헌하는데, 오늘 복음에는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오천 명을 먹이신 기적이야기가 봉독 됩니다. 그런데 오늘 봉독되는 오병이어의 이야기는 단지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이루신 기적이야기 뿐만이 아니라 성체성사와 깊이 연관되어 있음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비록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의 보잘 것 없는 것이었지만 그것을 나누었을 때, 모두가 배불리 먹고도 열 두 광주리나 남았다는 이야기는 바로 사랑과 나눔의 신비인 성체성사의 의미를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제2독서에서는 최후의 만찬 때 세우신 “성체성사”의 말씀이 전해지는데,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주시며, ‘이는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또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이 잔은 내 피로 맺는 새 계약이다. 너희는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1코린 11,23-25)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여러분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1코린 11,26)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매 미사 때마다 성체와 성혈을 축성하며, 주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미사는 바로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사랑의 제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사는 우리 삶을 통해서 또 다시 사랑과 나눔의 잔치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대축일을 매년 기념하는 교회의 가르침입니다.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남기신 글 중에 “**그리스도와 같이 이웃과 사랑으로 모든 것을 나누는 사람, 이웃의 아픔과 고통까지도 나누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는 그리스**

도를 닦은 사람이 됩니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성체의 삶을 구체적으로 살아야하는 우리들에게 남기신 소중한 말씀이십니다. **성체는 참으로 교회의 핵심**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이 음식을 먹고 자라납니다. 그리고 이웃과 함께 사랑과 나눔을 통해 성체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람은 그 어느 누구도 나눌 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실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고, 이웃의 불행과 아픔에 대한 무관심 때문에 나누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체성사의 참된 의미는, 하느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살아야 할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이 굶주림에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그들의 인간적 존엄을 지켜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당장 오늘 하루 사랑과 나눔과 친교의 기쁨을 직접 체험하는 소중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2013년 신앙생활 지침
 “주님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루카 19,5)

생명의 말씀

사랑의 빵, 생명의 양식

저는 몇 년 전, 수도권 어느 보육원에서 안식년을 지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젓먹이부터 유치원생까지 100명 내외의 아이들이 있는데, 수녀님들과 봉사자들의 따뜻한 보살핌을 받으면서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음식과 옷도 예상했던 것보다 좋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이상할 정도로 자주 병치레를 했습니다. 이유를 물었더니 원장 수녀님이 이런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어린 아이들에게는 부모 사랑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그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자주 아파요. 그게 안쓰러워서 더 잘 먹고 잘 입히려고 노력합니다만, 그런다고 부족한 사랑이 다 채워지겠어요?”

인간은 다른 사람의 사랑과 관심을 받아야 몸과 마음 모두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보통은 그런 사랑을 부모나 가족으로부터 받습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인간의 사랑은 조건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말 잘 들으면 사랑해주지만, 안 그러면 어림도 없다.” 는 식입니다.

예수님이 보여 주신 사랑은 인간의 사랑과는 사뭇 다릅니다. 그분은 죄 많은 인간들을 위해 당신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심지어는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성부께 기도하셨습니다.(루카 23,34 참조), 또한 당신을 세 번이나 배반했던 베드로를 다시 불러 목자의 직무를 맡기셨습니다.(요한 21,15-19 참조)

이렇게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은 헌신적이고 무조건적이며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크신 사랑을 주시고자 빵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육신 생명 유지에 꼭 필요한 빵에, 영혼 생명 유지에 꼭 필요한 당신 사랑을 담아 주시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오천 명을 배불리 먹이신 기적을 통해 이런 뜻을 넉넉히 알려주십니다. 그들이 먹었던 빵은 생명을 주는 빵(요한6,33)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최후 만찬 중에 성체성사를 세우십니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1코

현대에는 육신의 굶주림 못지않게 영혼의 굶주림도 큰 문제입니다. 영혼의 허기를 채우려고 먹고 또 먹어서 비만에 걸리는 사람이 급속도로 증가하는 것이 아닐까요?

영적인 허기를 달래려고 불량식품과 같은 유사영성에 빠지는 것은 아닐까요? 예수님은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루카 9,13)하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예수님을 생명의 빵으로 세상에 선포해야 할 사명이 큼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참된 사랑의 공동체가 됨으로써 생명의 빵이 되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허기진 이들이 교회 안에서 영혼의 생기와 활력을 얻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가 먼저 예수님을, 그분의 말씀과 삶을 생명의 빵으로 받아들이며 살아가야 합니다. 입으로는 예수님이 생명의 양식이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다른 것으로 배를 채우려고 한다면, 누가 우리말을 믿겠습니까?

손희송 베네딕도 신부
서울대교구 사목국장

6월 교황님의 기도지향

일반 : 상호 존중

대화와 경청과 상호 존중의 문화가 민족들 사이에 널리 퍼지도록 기도합니다.

선교 : 새로운 복음화

세속화가 만연한 곳에서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새로운 복음화를 효과적으로 촉진하도록 기도합니다.

말씀의 향기

신록이 더욱 눈부신 이유

지난주 UN 회의를 하느라 제네바에 있었습니다. 주일미사는 조용하게 드리고 싶어 근교 성당에 갔다가 우연히 리차드 버튼의 묘지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영화 ‘클레오파트라’에 엘리자베스 테일러와 함께 나오는 잘생긴 영국 남자배우입니다.

들꽃이 무성한 묘지 앞 비석에는 ‘리차드 버튼 1925-1984년’ 이라고만 쓰여 있더군요. 그렇게 유명했던 배우라면 ‘나는 배우다’ 정도의 묘비명은 있을 법한데 말입니다.

왜 갑자기 묘비명 타령이냐고요? 실은 얼마 전 참가한 영성수련 과정 중에 했던 ‘유서와 묘비명 만들기’ 프로그램 때문입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마지막 날을 생각하며 지금 삶 속에서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한가를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첫 번째 과제는 유서 쓰기. 가족들에게 “모두들, 내가 떠난다고 슬퍼 말아요. 난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재미있고 행복한 삶을 살았으니까요.” 라며 쿨 하게 시작한 유서가 어느새 노트 다섯 장을 넘겼습니다. 우선 제 인생을 환하고 풍요롭게 해준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 이름을 한 명 한 명 부르면서 정말로 고마웠다고 썼습니다.

그리고는 저로 인해 상처받았을 사람들과 제가 미워했던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습니다.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요. 다행히 주위에 아무도 없어서 소리 내어 영영 울면서, 훗날처럼 흐르는 눈물을 공책 위로 똑똑 떨어뜨리며 써 내려갔습니다.

왜 그렇게 미안한 사람이 많이 떠오르던지요. 좀 더 참을 걸, 좀 더 따뜻하게 대할 걸, 좀 더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낼 걸... 그러나 얼굴 마주보며 더 이상 미안하다 말할 수 없으니 더욱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과제는 묘비명 만들기. 솔직히 저는 지금 죽고 싶지 않습니다. 해야 할 일도, 하고 싶은 일도 많기 때문입니다. 신체 건강하고 정신도 매우 건강한 이런 새파란 나이에 생을 마감하는 것은 너무나 아쉬운 일 아닙니까?

그러나 이 프로그램의 각본대로 ‘내일’ 이제 마지막 날이라면 저는 기꺼이 이 세상이라는 무대를 떠나겠습니다. 이 무대의 ‘총연출’ 이신 하느님은 그동안 저라는 ‘배우’ 에게 딱 맞는 역할을 주셨습니다. 가끔 제 역량 밖의 일을 맡기실 때면, 도대체 날 어떻게 믿고 이러시나 하는 두려움과 감사함으로 온몸을 떨곤 했습니다.

그러니 듣

입니다. 시간, 열정, 에너지, 기도 등 가진 것과 할 수 있는 일을 아낄 이유도, 생각도 없습니다.

그러다 총연출자인 하느님께서 “네 역할은 여기까지, 이제 무대에서 아웃!” 이라고 명하시면 기꺼이 무대를 내려갈 것입니다. “그동안 즐거웠습니다. 이제는 안녕.” 이라고 하면서... 그래서 제 묘비명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몽땅 다 쓰고 가다.’

묘비명 생각 때문인지 초여름의 신록이 더욱 눈부시고 찬란하게 느껴집니다. 하느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계절을 충분히 감사하고 찬미하는 것, 이것이 언젠가는 무대를 내려갈 우리 배우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 아닐까요?

한비아 비아
UN자문위원, 이대 초빙교수

6월의 성인/성녀

가롤로 2왕가, 골롬바, 라자로, 루치아노, 루치아, 리카르도, 보니파시오, 안토니오(파도바), 베드로, 바오로, 바울라, 올리바, 유스티노, 유스티나, 엘리사, 요한, 율리아노, 제나, 체칠리아, 티모테오, 헬리코,

* 성요한 (6월 24일)

성 요한 세례자(Johnnes Baptistae)는 예루살렘 성전의 사제인 즈카르야(Zacharias, 11월 5일)와 성모 마리아(Maria)의 친척인 성녀 엘리사벳(Elisabeth, 11월 5일)의 아들로써 예루살렘 남서쪽에 위치한 아인 카림에서 태어났다. 그는 서기 27년경까지 유대 사막에서 은수자로 살았고, 30세가 되었을 때부터 요르단 강가에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고 설교하기 시작하며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다.

갈릴래아의 영주 헤로데 왕은 세례자 요한의 언행과 군중들에 대한 요한의 권위를 두려워하던 중에 어처구니없는 이유를 들어 그를 사해의 마캐루스 성채에 투옥하였다. 세례자 요한이 헤로데에게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와 결혼한 것은 옳지 않다고 공개적으로 비난하였기 때문이었다. 이 때문에 헤로디아는 간계를 꾸며 딸 살로메에게 그의 목을 청하도록 하여 요한은 결국 참수 당하였다.

제1514호 그리스도의 성체성혈대축일 2013년 6월 2일
“성체성사는 성사 중의 성사라고 할 만큼

가톨릭전례

중요한 것인가요?”

성경을 통해 가장 드라마틱한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의 이집트 탈출입니다. 아홉 가지의 재앙을 겪고도 파라오의 마음은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집트의 모든 만아들과 만배의 죽음 앞에 파라오는 굴복했습니다.

성체성사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해주는 성찬이고, 영적인 생명을 보존하고 성장시켜줍니다. 성체성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성부께 건너가신 새 파스카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죽음으로 이집트를 휩쓸 때, 이스라엘 자손은 죽음을 피합니다. 죽음의 파괴자가 문설주에 발라진 짐승의 피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의 집을 거르고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그 새로운 파스카는 최후의 만찬에 이루어졌고, 이 세상에 교회가 존재하는 한 단 하루도 빠짐없이 성찬례 안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가톨릭교회교리서 1340항 참조)

지긋지긋한 이집트의 노예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벗어나게 해준 결정적인 일은 이 파스카 사건입니다.(탈출12,1-42 참조) 이집트를 떠난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으로 출발합니다.

성체성사는 생명의 빵에 대한 위대한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천 명을 먹이신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모두 배불리 먹고 남은 빵이 열두 광주리에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사람들이 빵보다 재물을 대표하는 돈에 더 환호하는 세상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보장받지만 그곳으로 가는 길은 쉽지 않았습니다. 사막의 작열하는 태양 아래 그들은 굶주림과 목마름에 울부짖습니다. 배고픔은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결코 외면하지 않는 분이시기에 하늘에서 일용할 ‘만나’ 를 내려주십니다. 이스라엘은 만나를 먹고서 생명을 유지했고, 마침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빵 대신에 빵을 살 수 있는 돈을 나눠주는 기적을 베푸셨다면,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배고파하고 탐욕의 질주로 인해 광주리는 텅 비었을 것입니다. 세상은 지금 배가 고프습니다.

이제 인류에게 약속의 땅은 지정학적인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우리가 꿈꾸고 갈망하는 약속의 땅은 젖과 꿀 대신에 영원한 생명과 기쁨이 넘치는 하느님의 나라입니다. 이천 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베들레헴에서 세상의 빵이 되기 위해 태어나셨습니다. 하느님께서 온 세상 구원을 위한 메시아를 보내신 것입니다.

한쪽은 육체가 허기지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영혼이 굶주려 갑니다. 성체성사는 빛나는 세상을 바로 잡을 수 있는 힘의 원천이며, 우리가 목숨을 바쳐 지키고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최대의 유산입니다. 성체성사는 그리스도의 현존에 대한 실증이며, 세상의 악을 이기기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루카 22, 19)

예수님은 새로운 가르침과 놀라운 기적들로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십니다. 인간의 구원을 위해 원하시던 수난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 친히 예고하신 대로 당신의 몸과 피를 제자들에게 주시기 위해 파스카라는 때를 택하십니다.(가톨릭교회교리서 1338항 참조)

※ 참고: 가톨릭교회교리서 1322-1344항, 1382-1390항

사목국 연구실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께서 빵과 포도주의 축(降生)복에 새롭고 결정적인 의미를 부여하면서 성체성사를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생명의 빵으로, 당신의 피를 생명의 음료로 주십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요한 6,55)

- 성 정아상 바오로 트리아벨리 안인선주교의 -

주임신부 Fr. Thaddeus Kim 김타데오(선류) (925) 600-0188/사무실 (925) 600-0177

Pleasanton Middle School, Multi-Purpose Room

5001 Case Ave. Pleasanton, CA 94566

◆ 미사 안내 : 매주 주일 아침 9시/수 & 토요일 아침 9시 30분

날짜	지 향	봉 헌 자
6월 2일 일	연 김중화	정대레사(혜경)
	연 이성원	정대레사(혜경)
	연 정벤자민(대업)	정대레사(혜경)
	연 이마르코(재상)	가족
	연 정아네스	가족
	연 임그레고리오(재선)	가족
	연 김석순	가족
	연 서라이문도	서대레사
	연 윤세실리아(귀병)	이골롬바(정연)
	생 권용무/권순직/신경은	권엘리사벳(보미)
	생 유리디아(윤미)	찬미성가대
	생 정카타리나(상은)	찬미성가대
	생 이정우	전수산나
	생 정로사(화봉)	익명
생 김사비나(옥순)	이토마스(환)	
6월 4일 화	연 최베드로(휘종)	가족
	생 크리스티나 페리	가족
	생 권용무/권순직/신경은	권엘리사벳(보미)
	생 정시문/브르스아론조	전대레사
6월 5일 수	연 부모님	이바오로
	생 고지원	황안나
	생 성루카	이바오로(동춘)
6월 6일 목	연 본당선종연령들	선종봉사회
	연 이채복	이야고보(재우)
	연 김석순	가족
	생 본당신부님	익명
	생 정스테파노신부님	익명
	생 성루카	선종봉사회
6월 7일 금	연 형제/자매	이바오로
	연 서라이문도	서대레사
	연 메첼도안토니오/린	서대레사
6월 8일 토	연 이베로니카	자녀들
	연 김제이슨(재성)	김관용가족

지난주 우리의 정성

< 주일 헌금과 참여인원 >

구분	8시	11시	영어미사	합계
미사참석인원	81	240	-	321
헌 금	\$481	\$1,449	-	\$1,930

< 교무금 > \$2,750

서춘애(5) 유한섭(4-6) 이재우(5) 심연자(3-6)
이흥구(5-6) 황현숙(5-6) 김복철(5) 조덕행(5-6)
원광희(3-6) 석흥기(3) 강신호(3-4) 이건용(5)
성동화(4) 최재준(1-3) 박호영(6)

< 성소후원금 > \$90

서춘애(5) 조덕행(5-6) 박호영(6)

< Bishop's Appeal > \$70

서춘애(7-8) 조덕행(5-6)

< 감사 헌금 >

김순이 \$100

< 건축헌금 > 목표액 \$300,000

	지난주	금 주	누 계
약정액	\$311,015.28	-	\$311,015.28
봉헌금	\$291,545.28	-	\$291,545.28

*약정자 : -

*금주봉헌자 : -

*총 230세대 중 185세대가 약정해 주셨습니다.

2013년 신앙생활 지침 : “주님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루카 19,5)

- 공 지 사 양 -

◆ 여행자를 위한 안수기도 : 오늘 미사 중

◆ 전례안내
6월 6일(목) : 성시간

◆ 지속적인 성체조배
6월 7일(금) 저녁 9시부터 6월 8일(토) 아침 7시까지

◆ 2차 헌금
6월 9일(다음 주) Black & Indian Mission

◆ 꾸리아월례회 : 6월 8일(토) 아침미사 후

◆ 예비자 교리반 모집
사무실로 신청해 주십시오.
* 예비자 입교식 : 6월 23일 교중미사 중

◆ 주일학교 캠프 기금마련 세차
일시 : 6월 9일(다음 주)
장소 : 주차장

◆ 재정위원 신임 임명
김원조 도미니코

◆ 모임
* 뜨락회(청년모임) : 매주 교중미사 후 201회의실
- 성경공부 : 매월 첫째주일/셋째주 금요일 저녁 7시반
- 기도모임 : 매주일 10시 ~ 10시 40분 1회의실

◆ 요아킴회/안나회 야유회
일시 : 6월 22일(토) 아침 9시 성당 출발
장소 : Point Reyes
회비 : \$10(45명 선착순)
* 바람이 많이 부는 곳이니 두꺼운 옷을 준비하십시오.

◆ 교중미사 중 남자 독서자를 모집합니다.
신청 : 사무실

◆ 가톨릭 교리 문답(영문) 공부 홈페이지 안내
www.flocknote.com/catechism
청소년 교리서 <YOUCAT>을 구입하시어 위의 홈페이지에
등록하시면 교리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책은 amazon.com
에서

◆ 북가주 ME 25차 첫 주말

일시 : 7월 5일(금) ~ 7월 7일(일) 2박 3일
장소 : 산다미아노 피정센터(댄빌 소재)
문의 : 한치용 요셉/한현자 헬레나 415-810-3175

◆ 향심기도 피정

일시 : 7월 26일(금) 오후 6시 - 7월 28일(일) 오전 11시
장소 : Burlingame 에 있는 Mercy Center
참가비 : \$260(독방)
지도 : 서울교구 향심기도 사목담당 이승구 신부님
문의 : 김명환 안드레아 925-262-7094

◆ 여성 9차 꾸르실료 주말 수강자 모집

일시 : 8월 15일(목) - 8월 18일(일) 3박 4일간
대상 : 견진을 받으신 분
신청마감 : 6월 16일까지
문의 및 신청 : 이창용 레이몬드 510-688-0157

◆ 6구역에서 부활절 음식 판매 이익금으로 친교실쪽
성당입구에 성수반을 봉헌해 주셨습니다.
6구역 구역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주일학교 소식

- * 5월 26일 : 영어미사 없음(합동미사)
- * 9월 8일 : 주일학교 개강

안국학교 소식

- * 6월 1일 : 소풍
- * 2013 ~ 2014년도 등록 안내
 - 개강 : 2013년 9월 7일
 - SAT II 한국어 시험반(8월부터 시작 예정)
 - 수업료 : 5월말까지 등록 \$270(등록비 내는 날 기준)
6월말까지 등록 \$285
그 이후 등록 \$300
 - 문의 : 정인경 가브리엘라 415-517-3544
- * 기초반 교사 모집